

도, 임신·출산·산후조리 체계적 지원

가임력 검사 3회까지 확대, 20~49세 남녀 모두 지원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신설, 1인당 최대 180만원 제공
건강관리 쿠폰으로 도내 산재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지원
남원·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용료 30% 감면 혜택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 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 임력 검사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등 맞춤형 지원책을 새 립해 추진한다.

먼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 위험요 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준에는 결혼 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

한됐지만 올해부터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 누구나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 다.

가임력 검사는 연령에 따라 주기별로 1 회씩,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29세 이하인 경우 제1주기, 30세부터 34세는 제2주기, 35세부터 49세는 제3주기에 해 당된다.

지원금액은 여성의 경우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최대 5만 원(정액검사)이다. 기존 에는 가임력 검사가 임신 준비 부부 1회 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20~49세 미 혼 남녀 대상 최대 3회로 확대됐다.

또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지속 확대 한다. 올해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1회당 최대 110만원, 최대 27회까지 난임 시술 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방난임 치료 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약·침·뜸 등 한방 치료비를 1인당 최 대 180만원(4개월 기준)까지 지원할 계

획이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 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도 한층 강화된 다.

기준에는 산부인과와 한의원 의료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이 용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산모의 선택권을 대폭 넓혔다.

출산 가정은 1회 최대 20만원의 '산후 건강관리 쿠폰'을 발급받아 도내 지정 산 부인과·한방과 의료기관은 물론, 산후조 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권(남원시, 10 월 개소)과 서부권(정읍시, 2027년 1월 개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 공 공산후조리원에서는 도내 출산 가정 누 구나 이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인근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야 했던 불 편까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 도 건강증진과장은 "임신부터 출 산 후까지 전방위 지원을 강화해 출산 가 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안 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코엑스 인터배터리 2025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의 전북공동관을 찾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참여 기업들을 격려하고 전북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외치며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전북도내 시군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 1조5천87억원

좋은정치시민넷, 작년 시군 지역화폐 운영 현황 분석
익산시 다이로움 발행액 전년비 563억, 10.7% 감소
도내 주요 3시 중 발행수수료율 군산시 0.6%로 최고
전북도, 경기도처럼 수수료율 낮추기 위한 노력 절실

지난해 전북도내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총액은 1조5천87억원이며, 도민의 사용액은 발행액보다 많은 1조5천15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익산시는 4천676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했고 군산시와 전주시가 각각 3천185억원, 2천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군 지역에서는 고창군이 702억원으로 가장 많은 발행액을 기록했는데 익산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발행액이 가장 많았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최근 도내 14개 시군과 익산시의 지역화폐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좋은정치시민넷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할

인판매보전금은 총 1천476억6천만원으로, 모든 시군에서 1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발행운영비는 군산시가 19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는 18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전주시 등 도내 주요 3시에서 전주시 발행수수료율은 0.19%로 가장 낮았으며 군산시는 0.6%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보였다.

익산시의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은 지난해 발행액이 4천6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했고 시민 사용액도 4천585억원으로 11.9% 줄었다. 이러한 감소는 인센티브 구간 단일화와 소비촉진지원금 폐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맹점 수는 1만6천695개소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으나, 가입자 수

는 26만393명으로 10.9% 증가해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전북자치도 시군의 지역화폐 총 발행액이 지난해 익산시 일반회계 본 예산의 94% 수준으로 상당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예산으로 부담하는 지역화폐 발행운영비와 수수료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문선 대표는 이에 대해 "경기도처럼 공동운영대행사를 선정해 발행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화폐 발행의 목적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외의소비 억제에 있는 만큼 사용 현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사용액을 늘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도,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에서 이차전지산업 역량 홍보

코엑스 인터배터리2025 참가 '전북공동관 운영' 이차전지 강점 홍보
도내 8개 기업과 함께 소재부품-리사이클링 기술력 선보여

전북자치도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한다.

'인터배터리 2025'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전시회로, 소형 배터리부터 에너지, 자동차, ESS·EV 중대형 배터리까지 첨단 기술과 신제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글로벌 대기업을 포함해 500개 사가 참가하며 '더 배터리 컨퍼런스', 세미나, 잡매어,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전시회에서 도내 기업 8곳과 함께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

다.

참여 기업은 ▲대주전자재료㈜(실리콘 음극재) ▲㈜이큐브머티리얼즈(실리콘 음극재) ▲에버에너배터리솔루션㈜(분리막) ▲성일하이텍㈜(리사이클링) ▲㈜이디엘(전해액) ▲모나㈜(배터리 진단) ▲㈜에너지11(나트륨전지) ▲LS MnM(전구체 소재) 등 총 8개 사다.

특히 전북공동관에서는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등 전북자치도 5대 특례와 기업 친화적 정책,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 등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2026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조성될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소개해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

다.

이날 전북공동관을 찾은 김관영도지사는 참여 기업들을 격려하고 전북자치도만의 이차전지 연구 인프라, 인력 양성,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유치 강점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공동관 운영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기업이 전북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북공동관 운영이 도내 이차전지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역이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목돈 만들어 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17일까지 두배적금 참여자 1천3백명 모집...10만원 적금하면 두배로 2년 후 최대 5백만원 수령

전북자치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규 참여자 1천300명을 모집한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전북자치도가 동일한 금액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최대 500만원(원금 48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천명 모집에 1만4천621명이 신청해 14.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모집 인원을 1천3백명으로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39세 근로 청년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들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두배적금 플랫폼'(https://double.jb2030.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단순한 목돈 마련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교육도 포함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제도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규 참여자 1천300명을 모집한다.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

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0-2040)를 통해 가능하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접근성 강화 나서 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도 정착 위한 협약 체결

전북자치도는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확산과 도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5일 전북도청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전북자치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은 10.7%(2024년 12월 기준)로 전국 평균(6.2%)을 크게 웃돌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영된 결과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인간의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지역 연안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군산시 옥도면 직도·어청도·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지정...고시 즉시 효력 발생

국토교통부가 전북지역 연안 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거래 시 계약 무효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국토부가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년 10월)에 따라 지난 2월 26일 고시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8㎢(811필지)로,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전북 연안 도서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으로,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과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

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 국경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과 더불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도서 지역 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라형운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북 연안 도서는 국방·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계기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

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는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관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작품 전시

전북자치도가 전주시 한옥마을에 위치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에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의 작품 전시를 시작하며, 전통문화와 관광의 만남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전시는 전북의 대표적인 전통기

술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전통 공예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전시에서는 ▲김종연(민속목조각장) ▲서인석(약기장) ▲이현배(진안고원형) ▲박미애(자수장) 보유자의

작품이 소개된다. 이들은 오랜 시간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장인들로,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시를 통해 관광객들은 목조각, 전통약기, 자수 등 다양한 무형유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그 깊이를 체험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 전시를 시작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의 작품을 순환 전시할 계획이다.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은 전북자

치도가 엄선한 우수 관광기념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으로, 지역 특산품과 전통공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관광 명소다. 관광과 전통문화의 접점을 넓혀,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전통기술의 가치를 체험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무형유산 기능보유자들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시 기획과 지원을 통해 전북의 무형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졸음운전 예방 3 GO!

졸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세요!

창문 열 GO!

환기 하 GO!

잠시 쉬고 GO!

도, 특수용접 전문인력 양성…제조업 활력 제고

인력난 심화 특수용접 분야, 2027년까지 3년간 인력 집중 육성…취업 지원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경쟁력 제고…산업현장 공급 확대

전북자치도가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용접)분야 전문인력 집중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산학융합원이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운영되며, 청년들에게 특수용접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공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수용접은 자동차·조선·건설기계·뿌리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에서 필수적인 기술이지만,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청년층이 기피하면서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단순 인력 공급이 아닌 기술 전문화와 숙련공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구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가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용접)분야 전문인력 집중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신규입사자 취업성공수당지원(1년 이상 근로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숙련공에게는 멘토지원금 ▲비숙련공과 숙련공 매칭이 완료된 기업에게는 이음프로그램을 지

원해 지역 내 용접인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전북 도내 특수용접을 수행하는 산업(자동차, 조선해양기자재, 건설기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

으로 하며, 신규 용접인력 채용 및 숙련공 멘토 지정이 완료된 기업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전북자치도 및 전북산학융합원 홈페이지(www.jiuc.or.kr)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수용접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기업 간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산학융합원 일자리창출팀(063-472-28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 접수…31일까지

임산부 2천7백명 대상 인당 48만원 지원,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등 품목 다양…농가 상생 효과 도모

전북자치도는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협력으로 총 12억원을 투입, 임산부 2천7백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신청일 기준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비대면 자격 검증을 완료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31일까지 주



전북자치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임신·출산 증명서류 제출 후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임산부 1인당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며, 이 중 20%는 자부담이다. 1회 주문 한도액은 최소 5만원부터며 추가 자부담 시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바이오진흥원, 기능성 바이오 소재 제품화양산화 지원 기업 모집

생물활성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시장 진출 촉진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은 ‘생물활성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영덕문화관광재단과 함께 각 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해 기능성 소재의 제품화 및 양산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물활성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 및 양

산화를 통해 시장진출을 하고자 하는 영리기업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다.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원 신청 홈페이지(www.bsms.or.kr)와 바이오진흥원 홈페이지(www.jif.re.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 기관 담당자의 이메일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미 원장은 “첨단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도내 바이오 및 식품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도공 전북,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 삶의 질 향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40명 ‘전주수목원 조경원’ 채용…활기찬 시니어 조경원 새출발

한국도로공사 전북분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수목원 조경원’ 40명 전원을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지속돼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500여명을 채용했다.

선발된 조경원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의 조경시설물 관리, 주변 환경 점검, 보수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도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공공기



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회적 책무입니다”며, “앞으로도 고령자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리며 경제적 자

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세계여성의 날’ 맞이 육육길즈 방문…여성 활동 응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4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NH전북농협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과 함께 육육길즈 본사(대포 박예나)를 방문해 여성들에게 빵과 장미꽃을 나누며 여성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과 홍보를 위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리플렛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 홍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400명 발표

합격률 46.5%…18일 오후 6시까지 종사증명서 등 제출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시행한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이달 4일 발표했다.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861명의 응시자 중 400명이 합격해 46.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8.16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74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및 ‘동물보건

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새로 배출된 동물보건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물의료 현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양성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청, ‘인터배터리 2025’서 투자유치활동 펼쳐

5월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5’ 행사장을 방문했다.

인터배터리는 지난 2013년 처음 개최된 국내 최대 이차전지 전시회로 최신 기술과 혁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문 박람회이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국내외 배터리산업 관련 기업 640여 개사가 참여하며, 참관객 7만5천명이 넘게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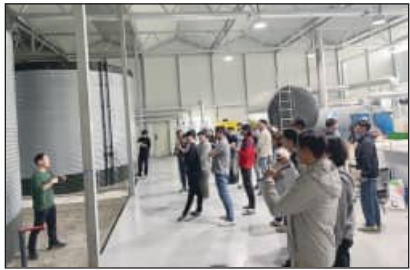
김 청장은 행사장에서 참여 기업들을 만나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현황 및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소개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를 위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또한 2023년 11월 새만금산단 투자(LS MnM,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총 2조2,093억원)를 확정하고 현재 공장을 건설 중인 LS그림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준호 기자

농촌진흥청, 원예·특용작물 신기술 현장 설명회 개최

10개 사업 대상…3~4월 지역 나눠 현장서 기술 설명·시연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원예·특용작물 신기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3~4월 두 달에 걸쳐 ‘원예특작 신기술보급사업 현장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요구와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특히 참여 농업인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연구 현장과 사전에 기술을 투입·적용해 본 농업 현장에서 설명과 시연을 결합해 진행한다.

특수한 재질의 멀칭 필름을 활용해 작물이 고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생육하도록 돕는 △저온성 필름 이용 스마트 노지 환경 조절 기술 설명회는 오는 11일 충북 음성에서 개최된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내맘 속 정기에금’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오는 31일까지 디지털 전용상품 ‘내맘 속 정기에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월 31일까지 ‘내맘 속 정기에금’ 1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스탠바이미(1명), 신세계상품권 10만원(10명), 배달의 민족 3만원권(30명),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매(300명)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이벤트 응모는 전북은행 모바일앱 ‘쓱뱅크’에서 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종합적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만기를 차등 적용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캠페인도 병행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 매월 4일을 자체 ‘고향4랑의 날’로 지정해 특색 있는

홍보 캠페인으로 기부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도교육청, 새학기 감염병 예방 강화로 학생건강 지킨다

감염병 예방 집중관리 기간 운영...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신입생 예방접종 점검·방역 수칙 교육 등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아동·청소년의 실내 집단생활이 활발해지는 신학기를 맞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를 '신학기 감염병 예방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과 신입

생 예방접종 점검, 방역 수칙 교육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유치원부터 초·중·고 및 특수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현황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내용은 ▲초·중 입학생 필수 예방접종 홍보 및 이력 확인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방역 수칙 준수 가정통신문 발송 ▲기숙사 입소학생 결핵검진 실시 및 확인 ▲감염병 예방관리 연간 계획 수립 ▲매일 감염병 현황 파악 및 보고 철저 등이다.

각급 학교에는 방역물품 확보 방안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계획을 수립하

고, 초·중학교 신입생은 필수 예방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미접종 학생은 접종을 완료하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및 학생 건강관리 방안을 안내해 가정에서도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기계공고 입학식...김정섭 벤처부처관 참석

학생·교직원 격려... “기술인재 양성 요람으로 성장해 줄 것”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섭 차관이 지난 4일 개교 50주년을 맞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임인현)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201명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생들과 교직원을 격려했다.

1975년 3월 1일 개교한 전북기계공고는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메카트로닉스'부문 금메달과 '프로토타입모델링'부문 금메달을, 2023년 국제로봇올림픽피아드 대회 창작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AI 특화교육 과정 운영 등 산업 수요에 발맞춘 교육으로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전체 마이스터고 평균보다 약 20% 높은 취업률이다.

김 차관은 이날 입학식이 끝난 후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는 광광나무로 기념식수로 했다.

김정섭 차관은 “전북기계공고에서는 AI로봇 공성설계, 스마트제조 자동화 시스템 등 산업계 수요에 맞춘 특화교육을 운영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술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재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폭 확대

식수 인원 지난해 대비 6,000명 확대... “학생들 건강한 식습관 형성하고 든든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을 더욱 확대해 운영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고물가 시대 속에서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120일 동안 진행된다.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생활협동조합 후생관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 학생식당인 후생관에서 열린 개막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과 조동휴 학생처장, 유창호 학생지원부처장,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는 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

하기 위해 대학 지원금을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렸고, 식수 인원도 지난해 24,000명에서 올해 30,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북대 학생 복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식수 인원을 늘려 더욱 많은 학생들이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학부모 리더 교육과정 수료... 학부모 교육 활성화

학부모협의회장 8명 학부모 리더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가지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올해 교육공무직원으로 7개 직종에 312명을 공개채용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직종별로 사서 86명, 교무실무사 6명, 조리실무사 185명, 특수교육지도사 31명, 교육복지사 2명, Wee센터 사회복지사 1명, 과학문화해설사 1명 등이다. 사서 86명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량 확대를 위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학교도

량을 학습하는 한편, 교사자문단과의 만남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에 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민완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지원장이 직접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학부모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수료생들은 앞으로 학부모회 운영 컨설팅, 공모사업 지원 등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한 학부모협의회 회장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



게 됐다”며 “앞으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문화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312명 공개채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올해 교육공무직원으로 7개 직종에 312명을 공개채용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직종별로 사서 86명, 교무실무사 6명, 조리실무사 185명, 특수교육지도사 31명, 교육복지사 2명, Wee센터 사회복지사 1명, 과학문화해설사 1명 등이다. 사서 86명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량 확대를 위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학교도

서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응시자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창조나래 1회의실에서 제공하는 원서제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직종별 응시 자격요건 및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올해 새롭게 부스를 마련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적응력 강화 행사 성황리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학생회관 일대에

서 2025학년도 신입생 적응력 강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학년도 신입생 적응력 강화 행사'는 신입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한 대학생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또래활동 및 다양한 진로·전공·학과탐색

하고 다양하면서도 융합적 학문 경험을

걷고, 줄이고, 끄고! 푸른하늘 함께 만들어요.

1
가까운 거리는
걷고



2
폐기물 소각량
줄이고



3
낭비되는 대기전력은
끄고



익산시, '상속차량 폐차 제도 개선' 전국적 관심

익산시가 상속차량 폐차 제도 개선이라는 적극 행정을 펼쳐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상속 자동차 말소 등록 절차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기존에 상속 차량을 폐차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해,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료 등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익산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상속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차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을 차량 잔존가치가 2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한정했다. 승용차는 11년 이상(경·소형은 10년), 승합차는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된 차량이어야 한다.

시는 상속차량 폐차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차량 폐차 허용으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 서남권관광협의회·코레일, '맞손'

기차 타고 전북 서남권 여행·관광 공동 마케팅 관광 상품 개발 등 적극 나서기로

전북 서남권 관광산업이 철도를 만나 한층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북 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이하 서남권협의회)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서남권 관광과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지난 5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두희 전북본부장과 이학수 정읍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참석해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및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서남권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철도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산업 진흥,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서남권협의회는 철도 관광상품의 공동 홍보와 연계 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 관광자원을 공유하고 관광 상품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전북본부는 서남권 관광과 연계한 철도 상품을 개발·운영하



전북 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이하 서남권협의회)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지난 5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관광객 모객·예약 관리 등을 담당한다.

협약식에서 3개 지자체장과 이두희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본부와 함께 서남권 관광 활성화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

라며 “문화관광과 철도여행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학수 시장은 “‘지역사랑 철도여행 반값 기차표’를 활용하면 수도권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서남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환경훼손 아픔 딛고 생태도시로 도약

국내최대규모 왕궁자연환경 복원사업추진합라장점마을도시생태축 복원사업내년준공 목표

익산시가 과거 환경오염으로 고통받았던 지역에 대한 자연 복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아픔을 딛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지난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과거에서 배움을 얻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차별화된 생태 관광 모범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올해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사업 ▲합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개 사업을 본래도에 올리게 된다.

두 장소는 ‘환경오염’이라는 상처를 갖고 있다. 왕궁면은 오래도록 이어진 집단 축산업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훼손을 겪었고, 합라면의 경우 한 비료공장의 불법행위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우선 왕궁정착농원은 2010년 범부처 합동으로 시작한 축사매입 사업이 13년 만인 2023년 완료되면서 복원 사업을 준비하는 첫발을 땀다. 시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왕궁면 일원 180만㎡에 국비 1,9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4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합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에는 합라면 장점마을 인근 지

역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간을 만드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복원사업 1단계로 ‘기억의숲’과 ‘빛물습지’에 대한 착공이 이뤄졌다.

시는 내년까지 합라면 일원의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고,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치유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장점지와 논습지, 억새숲, 탄소저장숲, 합라산 숲 복원지, 잔디광장, 구룡지놀이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미래 농업 선도! 정읍시, 80억원 규모 시범사업 실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신기술 보급·농업인 양성·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등 54개 사업 심의 진행

정읍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80억원을 투입, 54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열고 심의위원 위촉과 사업 추진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학수 시장은 시의 원, 농협 관계자, 대학 교수, 농업 관계 공무원, 농업인 단체 대표 등 2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을 핵심 산업으로 삼고 있는 정읍시는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신기술 보급 ▲전문 농업인 양성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건설한 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54개 사업에 대한 심의

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축산 분야 드론 비산저감 AI(공기흡입형) 노즐·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 ▲소득작목 분야 민감채소 수급 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14개 사업 ▲농촌 사회 분야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이 포함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6년 연속임산부건강지킨다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공급업체 6년 연속 선정…올해 10개 시·군 확대 공급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공급업체로 6년 연속 선정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미래세대 태어날 아이의 건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7개 시·군 공급에서 올해는 10개 시·군(군산,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으로 확대 공급하게 되었다. 앞으로 센터는 전북도 내 10개 시·군 1천여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지원하며, 단가는 1인당 48만 원(시·도비 보조 80%, 자기 부담 20%)이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장일 기준 임신부로, 센터는 선정 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역시 이번 지원사업이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 공급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사회적기업 최대 50% 임금 지원

일반 근로자 임금 30%·취약계층 근로자 임금 50% 보조

정읍시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채용·계약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정겨 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규 채용·계약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임금의 30%, 취약계층 근로자는 50%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시와 지원 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후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과수 병해충 예방 총력…방제약제 지원

1억 3,600만 원 투입…과수화상병·돌발해충 방제약제 공급

익산시가 과수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수화상병과 돌발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교육을 진행하고,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약제와 소독용 알코올을 공급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 과수에 발생하며 줄기, 잎, 과실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말라 죽는 병이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18개월간 재식이 금지되는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특히 과수화상병과 관련한 농업인의 준수사항이 법제화되면서 사과·배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 방제 교육 이수

와 3회 방제 의무 살포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충기(5월 말)와 성충기(10월)에 약제를 살포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돌발해충은 그늘음병을 유발하거나 줄기 등에 산란으로 인해 1년생 가지가 고사하는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군산문화배달' 신청 접수

'군산 문화배달'·'일터로 찾아가는 군산 문화배달' 참여 기업 모집

“문화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을 배달해드립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군산 문화배달'과 '일터로 찾아가는 군산 문화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군산 문화배달'은 시민과 군산시 소재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연 방문 및 놀이 배달을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일터로 찾아가는 군산 문화배달'은 평일에 문화센터나 예술회관을 찾기 어려운 기업 임직원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단이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창립기념일, 기업교육, 단합대회, 직장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군산 문화배달사업 모집 공고 및 신청서는 재단 누리집www.gunsan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csy6510@gunsancf.or.kr)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사업팀 (063-443-4808)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효과 톡톡

동절기 동파 건수 53건…3년간 평균 74건 대비 28.4% 감소

익산시가 겨울철 한파 속에서도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5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4~2025년 동절기 동파 건수는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동절기 평균 동파 건수 74건 대비 28.4%가 감소한 수치다.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 활동을 펼쳤다.

한파 시작 전 검침원을 통해 동파 방지 요령을 안내하고, 5층 이하 아파트와 노후 주택·상가 등 동파 취약 지역을 선별해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해 한파로 인한 동파 신고가 접수되면 주말 구분 없이 현장 대응반을 즉시 파견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 3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선정

국비 12억 확보…드론 배송·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실생활 서비스 확대
국제 드론레이싱 대회·드론제전으로 미래산업 선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배송, 레저스포츠, 행정서비스 등의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남원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시민이 체감하는 드론산업’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 정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활용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국내 우수 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특히 민선식 부시장이 인선 항공안전 기술원에서 열린 발표회에 직접 참석해 남원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실증 세부과제로는 ▲(주)아세파의 K-드론배송 표준안에 따른 남원형 드론배송 체계 구축 ▲(주)다이에프코퍼



남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레이션의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제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서류 및 발표평가 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그동안 남원시의 드론산업 기반을 구축했다면, 올 한 해는 저변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신성장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를 주축으로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와 첨단 드론 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25년 원 국제드론제전(10월 16일~10월 19일 (4일간))으로 국내 드론산업의 선도주자로서 첨단 미래축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타 지자체 '주목'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벤치마킹을 위한 남원 방문

남원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과 실행으로 인해 타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전주시 아동복지과 직원들은 남원시를 방문해 아동보호구역 운영 방안을 꼼꼼하게 살펴봤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아동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남원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도시공원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남원시는 34개소를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 안내표지판과 CCTV를 설치해 실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지역 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등의 협조로 순찰을 강화해 아동 범죄 예방 및 아동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드론동호회 알파스카이팀 드론축구 한일전 출전권 획득

남원시를 대표하는 남원 드론동호회 알파스카이팀이 오는 3월 30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Drone Soccer 한일 친선 교류전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번 출전권은 지난 2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열린 한국 모형 항공협회 주최 한국팀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확보한 것이다. 본 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드론 축구 교류를 강화하는 자리로,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팀만이 출전할 수 있다.

알파스카이팀은 남원의 드론 스포츠를 이끄는 대표적인 동호회로, 학생과 일반인 30명으로 구성된 강팀이다. 2023년 FAI 드론 샷 커 오픈 인터내셔널 컵 축구대회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2024년 한국 드론 페스티벌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해 왔다.

한편, 남원시는 2025년 시민 참여형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목표로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 및 경진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드론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글로벌 드론 스포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 강화해 정착 부담 덜다

농촌 체임 마련 정착 유도…이사정착바·영농기반 조성바·주택 수리비 등 제공

순창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하고,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문자 발송 등 개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농촌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이사정착바, 영농기반 조성비, 주택 수리와 신축바, 농촌 체험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군은 귀농귀촌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정착바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으로 전

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 세대로, 1인 세대 70만 원, 2~3인 세대 150만 원, 4인 이상 세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귀농 후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해 소득기반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업인으로 등록한 귀농인은 영농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저온저장고, 관정 등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세대당 최대 1,000만 원(50% 보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생활의 기분이 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와 신축비도 지원된다.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이 필요한 경우 세대당 최대 1,000만 원(70% 보조)까지 지

원반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귀농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이 사전에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30명 이상의 단체가 순창군을 방문해 농촌 체험을 할 경우, 1일 체험에는 50만 원, 1박 2일 체험에는 80만 원의 체험비(버스비 포함)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연중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063-650-1593~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4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기남 순창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장들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와 집행계획과 더불어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집행부진에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군은 신속집행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 전략을 수립

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은 자체적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전체 예산액 3,205억 원 중 1,763억 원(집행률 55%)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서별 목표를 수립해 신속한 집행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2위를 차지해 2억 2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삼레딸기 대축제 7일 개막…“딸기 러버 모여라”

봄과 함께 완주 삼레딸기 대축제가 찾아온다.

5일 완주 삼레딸기축제제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삼레농협 인근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제23회 완주 삼레딸기 대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축제에서는 딸기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체험, 이벤트를 선보인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개막식 공식행사에서는 대형딸기케이크와 파포만스와 인기가수 태진아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딸기 수학 체험’, ‘딸기 상설 판매장’, ‘딸기 스탬프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으며, 딸기를 활용한 40여 개의 베이커리 및 푸드존, 체험 및 판매존도 상시 운영된다.

특히, 삼레딸기를 활용해 만든 ‘완주 삼레딸기푸드마켓거리’를 최초로 선보이



완주 삼레딸기축제제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삼레농협 인근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제23회 완주 삼레딸기 대축제’를 개최한다.

며, 삼레에 위치한 우석대학교 호텔의 식조리학과와 협력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삼레딸기케이크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축제장 체험부스를 비롯해 축제장 인근의 삼레읍 비비정 예술열차, 향토예술문화회관 미션을 통해 스탬프

를 모으고 딸기 한 상자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딸기스탬프 완벽정복’과 어린이 관람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공연과 체험, 방문객이 참여하는 대형 딸기 케이크 만들기 행사까지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체 암종 최대 3년

완주군이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및 성인 암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5일 완주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감감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아암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일정 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 추가 지원대상이 된다.

성인 암환자는 전체 암종(행동양식 불명 일부암종 제외)에 대해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소아암 환자는 만 18세까지 전체 암종에 대해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연간 최대 2,000~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등 타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완주군보건소 방문사업팀(063-290-3067)으로 문의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농가 일손 지원

완주군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했다.

지난 4일 완주군은 고산농협 2층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군의회 의장, 손병철 조합장, 유영길 고산출소장을 비롯한 농협 이사 등 60여 명이 참석해 환영인사와 함께 쌀을 선물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필리핀 출신 30명(여 21명, 남 9명)으로 오는 7월까지 고산면 덕암에서 자립마을 공동숙소에서 머물며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양파, 마늘, 감자 등 소규모 농가의 일손을 지원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공공형 근로자들은 7일까지 공동숙소에서 조기적응 교육, 출입국관리법, 인권보호(법무부) 및 농작업 사전교육(농업기술센터), 피부과 진료(한센병원), 농작업 현장 교육을 받는다. 교육 수료 후 본격적으로 농가에 투입했다.

손병철 고산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경험한 아 올해는 더욱 촘촘한 관리로 농촌의 인력 부족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연계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서울 남원장학숙, 신입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에서 운영하는 남원장학숙이 지난 4일 2025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학숙 시설과 생활 규칙을 안내하고,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선배 입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장학숙이 보다 빠르게 장학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신입 입학생은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었지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장학숙 생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선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보문동에 위치한 남원장학숙은 남원 출신의 수도권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원 68명의 기숙사이다. 월 사용료는 15만원(1일 3식 포함)으로 독서실, 체육단련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경식 이사장은 “오리엔테이션이 신입 입학생들의 장학숙 적응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입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취약계층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최대 270만원 지원

남원시는 이달부터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를 최대 270만원까지(시 90%지원, 자부담 10%) 지원하는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틀니 및 임플란트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65세 미만에 대한 공적 지원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치아 시술이 필요함에도 시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남원시는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시 치과의사회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관내15개소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2023년~2024년도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으로는 각24명을 지원했으나 사업대상자의 수요 증가로 올해는 46백만원을 증액해 약1억원의 예산으로 49명에게 치아 치료를 시행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기업사옥천콘크리트,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순창군은 지난 4일 순창기업사(대표 봉성배)와 옥천콘크리트(대표 서명옥)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에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순창기업사는 벽돌과 수로관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옥천콘크리트는 여성기업으로 옹벽 블록을 생산하는 지역 업체다.

두 기업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비롯해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명옥 옥천콘크리트 대표는 “지역 학생들이 큰 꿈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화재 예방 투척용 소화기 지원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나기운, 공공위원장 전재인)는 관내 화재 취약 가구 20세대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투척용 소화기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옥도면 신규 특화사업이며 열악한 주거 환경과 거동 불편으로 응급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사업은 가정 내 소화기 미 비치 세대를 직접 발굴했으며, 이들에게 투척용 소화기 지원을 결정했다. 투척용 소화기는 무게가 가볍고 화재 발생 장소에 즉시 던지면 되므로 화재 발생 초기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지난 4일 전달식에 참석한 나기운 민간위원장은 “화재에 취약한 이웃들에게 이번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도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임실경찰서 김한민 순경,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마트 내에서 20여분 가량 휴대폰 조작만 하던 A씨 목격... 피해액 5,200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연루된 정황 포착



(순경 김한민, 사진)이 순찰 활동 중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운수과출소(소장 양재석)에서 실습 중인 신입 경찰관 (순경 김한민, 사진)이 순찰 활동 중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최근 군부대 사칭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마트, 철물점을 순찰하며 방법진단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던 김한민 순경은 마트 내에서 20여 분 가량 휴대폰 조작만 하고 있던 A씨를 목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한민 순경은 A씨에게 접근하여 상황을 묻던 중 불상의 피험의자와 피해액 5,200만원 상당의 대출 관련 문자

를 주고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김한민 순경은 A씨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 '시티즈 코난'을 설치하여 악성앱 2개가 감지된 것을 확인했다. 앱 삭제와 함께 민원인을 안심시키며 추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장대, 신입생들 과일컵 받고 웃음... 이색 입학식

재학생들 과일컵 준비... “선배들이 직접 만든 과일컵을 받으니 학교 소속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

군장대학교(총장 이진숙)는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재학생들이 직접 만든 과일컵을 신입생들에게 나누어주는 훈훈한 행사를 가졌다.

이진숙 총장은 “우리 대학의 가족이 된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기획 했다”며 “선배들이 정성껏 준비한 과일컵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의 첫걸음을 달콤하게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학생들은 전날부터 밤늦게까지 남아 신선한 제철 과일을 손질하고 예쁘게 담아 약 300개의 과일컵



군장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에서 재학생들이 직접 만든 과일컵을 신입생들에게 나누어주는 훈훈한 행사를 가졌다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첫출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한 끼로 온기를 전하는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의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함열 아사달공원에서 2025년 첫 시작을 알렸다.

지난 지난 5일 함열 아사달공원에서 진행된 행사는 도우리 봉사단(회장 김선교) 회원 20여 명이 참석하여 공원을 찾아주신 300여 명의 어르신과 이웃들을 위해 무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다. 이날 밥차 활동에는 익산시청에서



남원시 주천면, ‘염색방’ ‘우리동네 효자손’ 진행

주천면에서는 지난 4일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주천면 남·여 의용소방대원, 맞춤형복지팀이 협력하여 ‘도란도란 염색방’과 ‘우리동네 효자손’을 진행했다.

주천면 각 마을을 찾아가 여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염색을, 남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취약계층에 고효율 엘이디(LED 등 교체, 노후 전 기선 정리, 고장이 난 문 경첩 수리 등으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해드렸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군 주민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목욕탕 심정지 환자 생명 구해

고창군 성내면의 한 주민이 목욕탕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구조한 미담이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고창의 한 목욕탕을 방문한 이영선(66)씨는 목욕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이를 전 성내보건지소에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것이 떠올라 즉시 A씨에게 달려가 의식과 호흡을 확인했다.

A씨가 호흡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목욕탕 관계자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A씨는 의식을 되찾았으며, 이후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영선씨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재전진안청년향우회, 진안군에 고향사랑 마음 담은 3백만 원 기부

진안군 출향인들이 연이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고향인 진안 발전을 위한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일 재전진안청년향우회는 진안군수실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재전진안청년향우회는 재전진안향우회 안에 소속된 향우회 모임이다.

참석자들은 “진안 출향인들이 고향인 진안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멸위기의 고향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을 계기로 계속해서 기부에 동참하여 진안군에 힘을 보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전준성 진안군수는 “고향인 진안을 잊지 않는 향우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고향사랑 무주사랑 나윤채·김태영 씨 부부, 2백만 원 기탁

지난 5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나윤채, 김태영 씨 부부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 적상면이 고향인 나윤채 씨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무주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흐뭇한 마음”이라며 “나를 낳고 기른 무주가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의 난관 속에서도 깨끗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나윤채 씨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재생용 재료 수집과 판매를 하는 사업체를 운영 중으로 2024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6대 대전동구체육회 자전거연맹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분리배출의 핵심4가지!

비운다
용기 안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배출

행군다
이물질은 닦거나 행귀서 배출

분리한다
다른 재질(라벨 등)은 제거하여 배출

섞지않는다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해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一事一言〉



한국 극우 기독교의 뿌리, 이승만을 캔다(2)

주진오
역사학자·상명대 명예교수

배은희는 장로교 목사, 이승만은 감리교 장로, 이기붕은 감리교 권사였어요. 1954년 12월 기독교 방송이 개국했는데,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교세를 신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와 천주교만의 참여로, 1951년 초부터 군종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지요. 오로지 개신교에만 허용된 형목제도는 타 종교의 참여가 봉쇄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장례식도 개신교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기독교계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도 “국군장병의 ‘위령제’를 ‘추도식’으로 개최할 것”, “충영탑”이란 명칭을 ‘기념탑’으로 변경할 것”, “33인 합동추념식”에서 ‘분향’을 실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당시 문교부 안호상 장관은 국기배례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퇴학 처분을 옹호했어요. 개신교 측은 배례 방식이 ‘국기의 우상화’를 조장한다면 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교회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문교장관을 기독교인으로 교체했어요. 1948년 제헌 선거일은 원래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

다. 교회는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결국 선거일은 일요일을 피해 5월 10일로 결정된 것이었어요. 1949년 이승만 정부는 일요일과 겹친 ‘제헌절 1주년 기념식’을 월요일에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개신교는 이승만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탈라화로 들

어온 선교자금과 관련된 외환정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귀속재산 혹은 적산의 처리·배분 과정에서 천리교 부지를 영락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들이 차지하는 혜택을 입었지요.

이승만 정부하에서 교회와 신자들은 권력자와 과도하게 일체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온갖 영예를 받았고, 신자들에게도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자부심의 원천이었어요. 한국 사회 내의 지배적 종교의 하나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강성하던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에 직면하자, 교회는 이승만에 대한 동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 하락과 그에 따른 신자 증가율의 하락으로 나타났어요. 독재와 부패에 대한 개신교의 공동 책임을 추궁 당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살아있는 권력자의 동상이 남산공원에 있었어요. 25미터에 달하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동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쫓겨나자, 동상은 끌어내려졌고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계는 이승만의 개인 우상화 시도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똑같은 개신교인이었던 조병옥이 4대 대선에 나서자 “이 박사와 겨루는 것은 곧 하나님과 겨루는 것과 같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백만 기독교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장로 이승만과 착하고 진실한 사람 권사 이기붕을 세우자’고 선거운동을 벌였어요. 개신교계는 자유당 후보 이승만과 이기붕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부정선거 규탄시위의 원인을 ‘하루하루 첨예화해 가는 정당 싸움의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던 4.19 혁명이 일어난 후인 4월 22일에 조차, KNCC는 이승만의 “건강을 송축”했어요. 4월 혁명은 한국 기독교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는 불교로, 조선은 유교로, 또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망한다’는 말까지 돌았어요. 당시 개신교회의 모습은 ‘푸줏간에 끌려가는 송아지 모양으로 민중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평화와 혁신의 요구가 분출되었고, 새로운 정교관계의 윤리를 토대로 갱신, 혁신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다시 권력과 손을 잡았어요. 결국 한국 개신교가 권력과의 유착을 끊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어요. 이승만이 만들었던 반공과 진미를 통한 기독교 국가의 건설이라는 틀은, 한국 교회의 원형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신앙만큼이나 절대적인 가치를 이루었어요. 오늘날 극우 집회에서 태극기와 함께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한국 교회는 윤석열 정권 아래서 이승만 정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과오를 범했어요. 무속에 의지하는 윤석열 부부를 치하하고 축복하며 지지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해서 격려했고, 윤석열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열렬히 환대해 주었어요.

오늘날 전광훈·손현보로 대표되는 극우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며 기념관을 건립하고 다큐 영화제작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한국 사회를 이승만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광훈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했습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 사표 내고 나라 바꾸자”라는 등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한국교회는 전광훈을 방치했어요.

그 결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키웠고, 마침내 법원 폭동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광훈·손현보로 과잉 대표되고 있는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2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지 못하면 개신교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임신 출산 지원정책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자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강화는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이후까지 체계적인 지원책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출산과 육아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다. 따라서 출산 가정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직장 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이 이를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현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보육 시설 확충과 질적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공공보육시설의 수를 늘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 안정 정책과 연계된 출산 장려 정책도 요구된다. 출산율이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주거 비용과 불안

정한 주거 환경이다. 신혼부부 및 자녀녀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자금 대출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주거 안정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전북도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방에서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젊은 층의 수도권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청년 세대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안정적인 고용, 합리적인 노동시간,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이 뒷받침될 때 출산율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도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 강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 가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보육, 교육, 주거, 노동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출산율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문화재열전



귀신사 석수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물, 민간신앙조각, 석조
-지정일- 1974년 9월 27일
-시대- 미상
-소재지- 김제시 금산면 청도6길 40 (청도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윤관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전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JBT 전북타임스신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자연과 숨쉬는 도시 익산! 녹색정원도시 조성 박차

익산시가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용안생태습지와 신흥공원 개발을 통해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용안생태습지, 정원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지

익산시는 총사업비 149억 원(도비 72억 원 포함)을 투입해 용안생태습지를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전체 조성 면적은 66ha 규모이며, 5개 주제 정원과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다. 멸종위기종과 자생식물을 식재하고,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교육장도 함께 조성된다.

시는 상반기 착공해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용안생태습지는 추후 자연과 정원이 조화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 생태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흥공원, 익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

시는 도심 속 수변 공간인 신흥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에 더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우선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경관 보행교가 오는 9월 내 조성될 예정이다. 보행교의 길이는 274m이며, 폭은 5m이다. 단순한 다리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리 자체가 하나의 정원이 되도록 경관디자인과 조명이 포함된다.

시는 또 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라 신흥동 일원에 45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든다.

무지개 정원(9,100㎡)에는 관목·초화류 16만 7,200주를 식재해 오는 5월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2만 7,000㎡ 크기의 신흥공원 입구 부지에는 자연 생태 기반의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 테마파크와 명품 관광지를 만든다. 2028년까지 '다이어로움 빛의정원', '감성포도정원' 등 야간 미디어 관광콘텐츠를 설치한다.

용안생태습지, 자연과 정원이 어우러진 생태관광지로 신흥공원, 익산의 새로운 수변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 탄소흡수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곳곳 확대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대

시는 도시열섬 완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폐철도나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 사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라선 폐철도 유휴부지(인화행복주택·평화육교) 도시숲 조성'은 올해 안으로 완료된다.

총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수목 식재와 산책로, 쉼터 조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유천생태습지공원 유휴부지 1ha에는 숲·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익산시청 구청사 주차장과 석제품전시홍보관

유휴부지 내에도 테마가 있는 도시숲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서는 기존 식물원의 노후 공간과 산책로를 개선하고,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해 녹색 경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 개선 및 녹지 확대…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시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녹색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학교 주변에 가로수와 녹지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이 일환으로 왕궁면 푸드폴리스 일원 2km 구간에는 청단풍과 흰말채 등 1만 2,500주의 가로수를 심는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이리남창초와 이리모현초에는 남천과 루피너스 등 25종, 1,300주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는 '자연안심 그린숲'을 조성한다.

시는 이러한 사업이 도심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친환경 녹지 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숲 확대와 정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익산을 대표하는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http://council.jinan.go.kr>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제9대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